

1. 실물경제

〈글로벌동향〉

- 2016년 4/4분기중 미국 및 일본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유로지역과 중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미국, 유로지역 및 중국에서 오름세가 확대

〈국내동향〉

-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

가. 글로벌동향

1) 미국

- 미국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은 2016년 4/4분기중 1.9%(잠정치)로 성장세가 약화
 - 2014년 2/4분기 이후 고용시장의 개선 및 양호한 소비심리에 따른 구매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
 - 4/4분기중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시장 예상(2.2%)을 하회

미국의 GDP 성장률 및 구성요소별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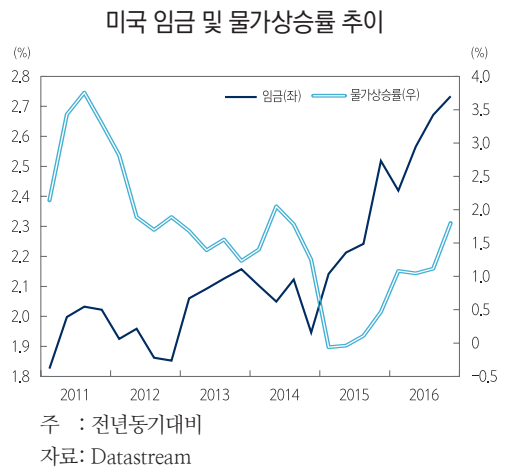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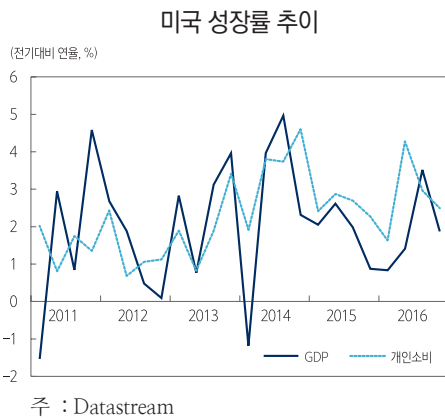
(단위: 전기대비 연율, %)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률	2.6	2.0	2.6	2.0	0.9	1.6	0.8	1.4	3.5	1.9
개인소비	2.2	1.6	1.9	1.8	1.5	1.8	1.1	2.9	2.0	2.1
고정투자 ¹⁾	0.8	1.6	0.2	0.4	-0.4	-0.3	-0.6	-1.3	0.5	1.5
정부지출	0.3	0.5	0.6	0.3	0.2	0.2	0.3	-0.3	0.1	0.1
순수출	-0.7	-1.7	-0.1	-0.5	-0.5	-0.1	0.0	0.2	0.9	-1.7

주 : 1) 설비투자+주택투자+재고투자

자료: BEA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임금상승,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3/4분기 1.1% → 4/4분기 1.8%)



2) 유로지역

□ 유로지역 2016년 4/4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은 0.4%(잠정치)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2013년 2/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
- 4/4분기중 대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호조(제조업 PMI: 3/4분기 52.1 → 4/4분기 54.0) 및 고용상황의 안정세 지속(실업률: 16년 9월 9.8% → 12월 9.6%)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유지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시현(3/4분기 0.3% → 4/4분기 0.7%)

— 특히, 2016년 12월 1.1%, 2017년 1월 1.8%로 최근 들어 오름세가 큰 폭 확대되는 모습

유로지역 GDP 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유로지역	2.3	0.8	0.4	0.3	0.5	1.7	0.5	0.3	0.4	0.4
독 일	1.5	0.2	0.5	0.2	0.4	1.8	0.7	0.5	0.1	0.4
프 랑 스	1.2	0.6	0.0	0.3	0.2	1.1	0.7	-0.1	0.2	0.4
스 페 인	3.2	1.0	0.8	0.9	0.8	3.2	0.8	0.8	0.7	0.7
이탈리아	0.7	0.3	0.4	0.1	0.2	1.0	0.4	0.1	0.3	0.2

자료: Datastream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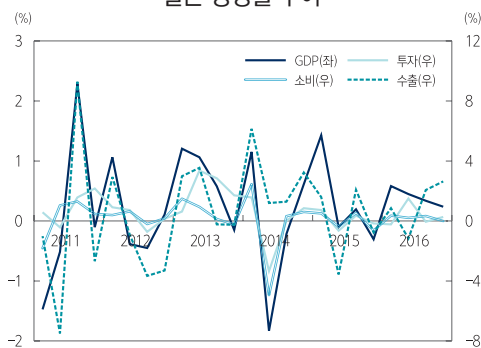
□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2016년 4/4분기중 0.2%(잠정치)로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

— 소비세율 인상(2014년 4월) 영향 감소 등으로 고성장을 보였던 2015년 1/4분기 이후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뚜렷한 회복 모멘텀없이 성장과 침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 4/4분기중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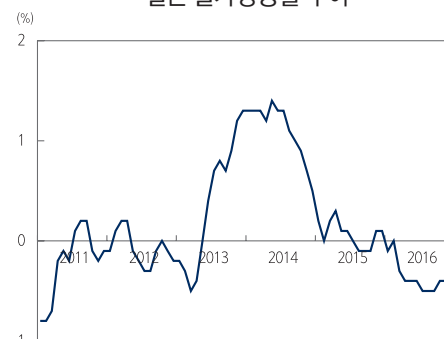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기업의 가격인상 기피 및 가계소비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분기대비 감소폭이 축소(3/4분기 -0.5% → 4/4분기 -0.3%)

일본 성장률 추이



자료: Datastream

일본 물가상승률 추이



주 : 신선식품 및 소비세율 인상 제외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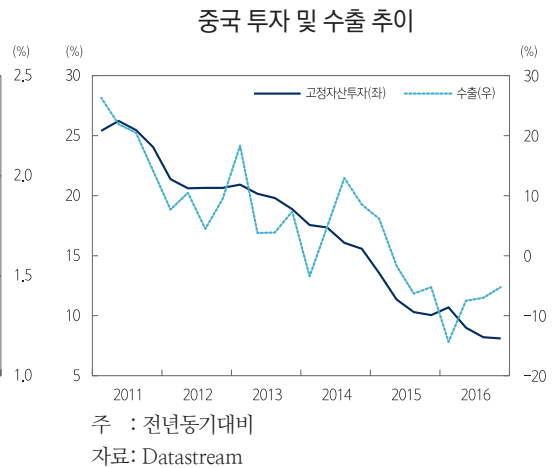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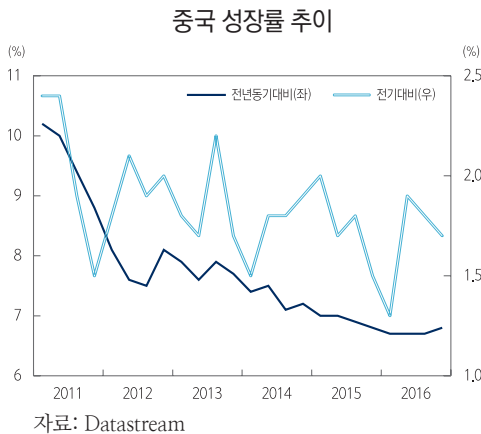
4) 중국

□ 중국의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16년 4/4분기중 6.8%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

- 2014년 이후 투자 위축 및 수출 둔화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16년 들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하방 압력이 완화
- 4/4분기중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출 감소폭의 축소 및 비교적 양호한 소매 판매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식품가격 상승 및 교육서비스요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3/4분기 1.7% → 4/4분기 2.2%)

- 또한, 4/4분기 들어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확대(3/4분기 0.1% → 4/4분기 5.5%) 되면서 글로벌 물가 상승 우려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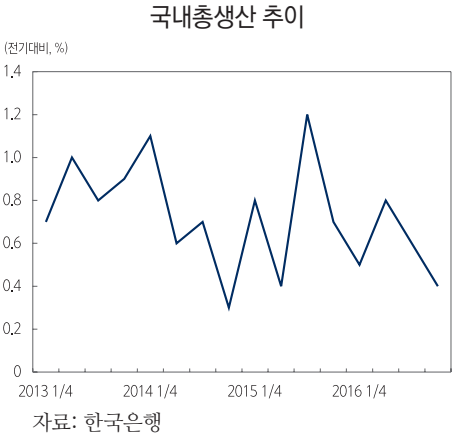
나. 국내동향

□ 국내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2016년 4/4분기중 0.4%(속보치)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

-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및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전반의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은 모습

— 4/4분기중 설비투자의 증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감소로 전환되며 내수 회복세가 약화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하방압력이 완화되며 오름세가 크게 확대(3/4분기 0.7% → 4/4분기 1.5%)



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S.A., 전기대비, %)

	2016				
	연간	1/4	2/4	3/4	4/4
GDP	2.7	0.5	0.8	0.6	0.4
민간소비	2.4	-0.2	1.0	0.5	0.2
설비투자	-2.4	-7.4	2.8	0.2	6.3
건설투자	11.0	6.8	3.1	3.5	-1.7
정부소비	3.8	1.3	0.1	1.4	0.5
수 출 ¹⁾	1.4	-1.1	1.1	0.6	-0.1
수 입 ¹⁾	3.0	-3.1	2.1	2.8	0.2

주 : 1) 통관기준 수출입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은행

연구위원 강현주 (02-3771-0850, hjkang326@kcmi.re.kr)
연구원 장효미 (02-3771-0872, janghm@kcmi.re.kr)

실물경제 주요 이슈: IMF 세계경제전망(2017년 1월)

- IMF는 1월 16일 발표한 수정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2017년 및 2018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2016년 10월)과 동일하게 각각 3.4% 및 3.6%로 유지
 -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함께 중국 및 자원수출 신흥국 성장세 개선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국별로는 종전에 비해 2017년 성장률 전망치가 선진국 국가들은 상향 조정된 반면 중국 및 러시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 국가들은 하향 조정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			2016년 10월 전망과의 차이	
		2016	2017	2018	2017	2018
세계		3.1	3.4	3.6	0.0	0.0
	선진국	1.6	1.9	2.0	0.1	0.2
	미국	1.6	2.3	2.5	0.1	0.4
	유로지역	1.7	1.6	1.6	0.1	0.0
	일본	0.9	0.8	0.5	0.2	0.0
	신흥국	4.1	4.5	4.8	-0.1	0.0
	중국	6.7	6.5	6.0	0.3	0.0
	인도	6.6	7.2	7.7	-0.4	0.0
	브라질	-3.5	0.2	1.5	-0.3	0.0
	러시아	-0.6	1.1	1.2	0.0	0.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7.1.

-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반영하여 2017년(2.2%→2.3%) 및 2018년(2.1%→2.5%)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 독일(1.4%→1.5%), 일본(0.6%→0.8%), 스페인(2.2%→2.3%), 영국(1.1%→1.5%) 등은 2016년 하반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내면서 당초보다 상향 조정
- 한편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을 이탈리아(0.9%→0.7%)와 함께 2017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된 국가로 명시

- 2016년 10월 한국의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3.0%였으며, 하향 조정된 구체적인 전망치는 2017년 4월 발표될 예정
- 중국(6.2%→6.5%)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효과 등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자본유출 및 과도한 기업 부채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될 우려 상존
- 인도(7.6%→7.2%)는 화폐개혁 단행에 따른 가용 현금 부족 및 대금 결제 문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전망을 하향 조정

□ 한편 IMF는 2017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유럽 및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스템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등을 지목

-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각국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및 금융회복력 강화 등을 권고
 - 선진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유지와 더불어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할 필요
 -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악화 및 급격한 자본유출 등을 대비해 금융 회복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